공효진 "로코 인기 비결? 자존감 센 캐릭터 덕"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주연

영화 '차가운 도시 여자'·드라마 '챙겨주는 인물'
"자기 일 잘 하면서 사랑도 해야 밉지 않는 법이죠"

"오히려 주 종목을 할 때가 걱정돼요."

최근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로코퀸' 공효진(39)의 말이다. 내숭이나 엄살과는 거리가 먼 그가 앓는 소리를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주 종목이란 로맨틱 코미디 장르다.

현재 그가 주연한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고, 다음 달 2일에는 '가장 보통의 연애'(김한결 감독)가 극장에 내걸린다. 안방과 스크린에서 동시에 성격이 다른 '로코' 주인공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두 캐릭터 모두 강단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낸다. 드라마 속 동백이 다소 천진해서 챙겨주는 인물이라면, 영화 속 선영은 사랑에 대한 환상이라고는 전혀 없는, 차가운 도시 여자에 가깝다.

공효진은 "제게도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여성스러움과 남성적인 면, 또 여리면서도 차갑고 냉소적이고 직설적인 면을 지녔다. 어떤 모습이 제 실제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며 웃었다.

극 중 선영은 남자 친구와 '뒤끝 있는' 이별 후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다 출근 첫날, 전 여친과 헤어진 뒤 술독에 빠져 지내는 직장 상사 재훈(김래원)과 얽히면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한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질투의 화신' 등 로맨스 드라마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힌 공효진이지만, 로맨스 영화는 '러브픽션'(2011) 이후 사실 두 번째다.

공효진은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던 다른 느낌의 캐릭터여서 선택했다"면서 "그전까지 제가 맡은 역할은 열정이든, 정이든 온기가 넘쳤지만, 선영은 차갑고, 뾰족뾰족하며 냉소가 가득한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공효진은 영화에서 수위 높은 대사를 소화한다. 남녀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내뱉거나, 못나게 구는 전 남친에게 말 한마디로 통쾌하게 복수한다. 공효진은 "대사가 세다기보다 오히려 '유아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시나리오에는 더 폭탄같이 터지는 면이 많았는데, 완화한 편"이라고 말했다.

함께 호흡을 맞춘 김래원에 대해선 "진짜 감정에 충실히 연기하려고 하는 아티스틱한 배우"라며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계속 채찍질한다. 그런 면이 래원 씨의 리얼한 연기의 원동력인 것 같다"고 했다.

그간 공효진이 출연한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는 흥행 면에서 '평타' 이상을 했다. '동백꽃 필 무렵'도 시청률 10.0%를 넘겼다. '믿고 보는 공블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공효진표' 로코의 인기 비결은 과연 뭘까.

"대본을 잘 고른 게, 특히 자존감이 센 역할을 골랐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사랑에만 매달려서 울고불고 주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캐릭터는 기피해왔죠. 오히려 자기 일을 잘 끌어가면서 사랑에도 웃고 우는 그런 인물을 골라냈던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자기 본업을 잘하면서 사랑도 해야지 밉지 않은 법이거든요."

'로코' 연기의 노하우가 쌓인 것도 도움이 됐다. 시청자들과 밀당하되, 선을 넘지 않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공효진은 상대 배우 복이 많은 배우로도 꼽힌다. 김래원을 비롯해 강하늘, 원빈, 강동원, 공유, 하정우, 조인성, 소지섭, 조정석, 김수현 등 수많은 톱스타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공효진은 '가장 최고의 파트너를 꼽아달라'는 말에 강하늘을 외쳤다. 이유는 조금 독특하다. "저처럼 하늘 씨도 대사를 잘 못 외워서 마음이 편해요. 완벽하게 대사를 외워오는 파트너를 만나면 압박을 받거든요. 하하."

/연합뉴스

BTS 제이홉 '치킨 누들 수프' 69개국 아이튠즈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신곡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사진)가 흥행 홈런을 쳤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제이홉이 지난 27일 발표한 이 노래가 28일 오전 8시 기준 세계 69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치킨 누들 수프'는 제이홉이 처음 춤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접한 음악인 웹스타(Webstar)와 영비(Young B)의 동명 노래에서 후렴구를 인용해 재창조한 것이다. 미국 가수 베키 지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제이홉은 전날 음원 공개 직후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발표했다. 뮤직비디오, 의상, 헤어, 액세서리, 커버아트 모두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비디오 앱 틱톡(TikTok)은 '치킨 누들 수프' 음원 공개와 동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0여개 국가에서 글로벌 프로모션 '씨엔에스 챌린지(CNS challenge)'를 진행하고 있다.

'치킨 누들 수프'를 듣고 제이홉의 춤을 따라 추는 영상을 해시태그(#CNSchallenge)와 함께 업로드 하는 형태로 펼쳐진다. 챌린지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이다.

/연합뉴스

KBS '사풀인풀' 19.6·tvN '날 녹여주오' 2.5% 출발

JTBC '멜로가 체질' 1.8% 종영

KBS 2TV 새 주말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하 '사풀인풀')과 tvN 새 주말극 '날 녹여주오'가 각각 충격적인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다.

29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 방송한 '사풀인풀' 첫 방송 시청률은 17.1%~19.6%를 기록했다. 전작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첫 방송이 기록한 22.6%~26.6%보다는 낮은 성적이다.

'사풀인풀'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김정아(설인아 분)가 온라인에서 만난 구준겸(진호은)과 세상을 등지려고 했으나, 결국 준겸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KBS 주말극답지 않게 학생들의 죽음을 그리며 시작해 몰입도는 높았지만 동시에 비판도 따랐다. 온라인에서도 "가족이 다 보는 주말 저녁 시간에 이런 소재는 너무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류스타 지창욱의 제대 후 복귀작 tvN '날 녹여주오'는 2.5%(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 시청률로 출발했다.

1회에서는 스타 예능 PD 마동찬(지창욱)이 냉동인간 프로젝트를 촬영하기 위해 직접 냉동인간이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JTBC 금토극 '멜로가 체질'은 1.803% 시청률로 종영했다.

이 작품은 진주(천우희), 은정(전여빈), 한주(한지은)가 각자 다른 이유로 함께 살던 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웰컴2라이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2030 미래리포트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30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월드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썸바이벌 1+1(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한편으로 정주행 〈W〉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조선로코-녹두전	05 스트레이트	00 리틀 포레스트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05 문화콘서트 난장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낭만클럽	4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출동! 슈퍼윙스
09:15 마샤와 곰
09:30 원더볼즈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별일 없이 산다
14:45 몰랑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5:10 로보카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출동! 슈퍼윙스(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마샤와 곰(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페파 피그(재)
17:45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동남아 소수민족 기행
-구름 속에 산다, 자오족〉
21:30 한국기행
〈시골 부자 1부
팔금도 만능 손의 성공 비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35 별일 없이 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0일 (음 9월 2일 庚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자. 48년생 웃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지울 길이 없다. 60년생 목표에 근접하고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72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하자. 84년생 상당히 타격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각오하라. 96년생 절대로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15, 87

丑 37년생 새로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라. 49년생 아직은 모호하니 추이를 지켜봐야 할 판국이다. 61년생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73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른다. 85년생 길경이 넘칠 수니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97년생 참으로 귀한 이가 매우 소중한 것과 관련 시켜 주리라. 행운의 숫자 : 99, 94

寅 38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자중하며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50년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요 하느니라. 62년생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다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중차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이르렀다. 86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98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50

卯 39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51년생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분이 들 것이다. 63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75년생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87년생 복합적 요소로 인해서 우회하는 길이 오히려 빠르겠다. 99년생 행운이 코앞에 당도하였으니 어서 문을 열고 맞이하여라. 행운의 숫자 : 44, 88

辰 40년생 중차대한 일이 보이니 만전을 기해야 한다. 52년생 대체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실체를 접하는 길목에 이른다. 64년생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계속 밀어 붙여야 한다. 76년생 전반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88년생 화의 씨앗은 아예 만들지 말라. 00년생 시종일관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고역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09

巳 41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53년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65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 해야겠다. 77년생 원인은 따로 있으니 세밀하게 찾아본 후에 대처하라. 89년생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더 나을 것이다. 01년생 석연치 않다면 중단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05, 63

午 30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42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54년생 막힘없이 술술 풀리리라. 66년생 용기가 있어야 한다. 78년생 정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하느니라. 90년생 말을 듣고 나면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4, 07

未 31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43년생 예정 되어 왔던 돈은 들어 올 것이니 조바심은 버리자. 55년생 현태대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 67년생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79년생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겠다. 91년생 양호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행운의 숫자 : 69, 76

申 32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44년생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56년생 모두가 따로따로이므로 개별적인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68년생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희망찬 미래를 연다. 80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알라. 92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7, 01

酉 33년생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쁨을 맛보겠다. 45년생 바로 지금이다. 57년생 유독 빼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선택의 폭이 커진다. 81년생 당분간 말없이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3년생 기대 했던 바는 물 건너가고 기쁨을 주는 이가 따로 있다. 행운의 숫자 : 24, 38

戌 34년생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46년생 미진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리라. 58년생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이다. 70년생 수익은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다. 82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94년생 시선이 가지 않았던 곳에 관심을 돌릴 때다. 행운의 숫자 : 36, 46

亥 35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47년생 겉과 속이 꽉 찬 모습이니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59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형태가 보이리라. 71년생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83년생 희소식을 듣게 된다. 95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84, 30